

당신의 색을 즐기세요

오라소마'의 본고장 영국 데브오라 탐방기

칼라테라피로 주목 받는 오라소마는 1984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리틀런던의 작은 마을 데브오라는 오라소마의 탄생지이자 세계 오라소마 본부가 있는 아름다운 빛의 고장입니다. 국내에서 오라소마 프랙티셔너로 활동하던 이희석 씨가 티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데브오라를 방문하여 쓴 생생한 글을 통해 신비로운 오라소마의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마법학교를 가는 열차를 타는 유명한 플랫폼이 있는 킹스크로스King's Cross 역. 바로 거기서 그랜담Grantham 행 특급열차를 타고 1시간, 그리고 다시 택시로 90분을 더 들어가면 리틀런던Little London이라는 한적한 마을이 나옵니다. 해가지면 가로등이 없어마을 대부분이 어둠에 휩싸이는 이곳에 해마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칼라로 이루어진, 오라소마 바틀의 신비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오라소마 바틀에 담긴 칼라들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끌어당기는 특별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이너 칼라Inner Color'를 깨우고 자극합니다. 오라소마 상담을 통하여 또는 오라소마의 교육을 통하여, 칼라의 신비로움에 눈을 뜬 세계 각지의 이들은 그것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고자 오라소마의 탄생지이자, 전 세계 오라소마 학생들의 배움과 만남의 장소인 데브오라Dev-Aura를 방문합니다. 그 데브오라가 바로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소마 창시자 비키월 여사의 숨결 느껴져

저 또한 오랫동안 오라소마를 공부하고, 오라소마 프랙티셔너로서 활동해 왔지만, 오라소마의 본고장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면서, 마치 첫사랑의 연인을 만나는 듯이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데브오라의 내부에 들어서자 먼저 눈길을 끈 것은 거실의 한 부분을 차지하던 황금빛의 거대한 불상이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이 주류인 서양에서 이렇게 붓다의 모습이 당당하게 노출되는 것은 매우 색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라소마는 종교에 구애 받지 않고 모든 지혜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방문자들은 데브오라 안의 방에 직접 숙박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엘모리어⁴, 세인트St. 제메인⁵, 쿠틀후미⁶, 힐라리온⁷, 세라피스베이⁸ 등 오라소마에 등장하는 각 칼라의 마스터 에센스⁹의 이름이 각 방에 붙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각 방안의 내부는 해당 칼라의 분위기에 맞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디나다¹⁰의 방은 은은한 핑크 칼라 컨셉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잠시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게 터치해 주는 핑크의 “어머니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의 에

너지를 듬뿍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을 통과하면 오라소마 강의와 워크숍이 열리는 커다란 홀이 나타납니다. 안에는 다채로운 칼라의 의자들이 원을 이루고 있으며 106개로 구성된 아름다운 오라소마 바틀과 형형색색의 조형물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칼라의 신비로움을 느끼며 명상과 사색에 잠기곤 합니다. 강의장을 지나 밖으로 나가면 일곱 개의 문으로 된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오라소마의 창시자 비키윌 여사¹¹가 사랑한 정원으로 지금도 아름답게 손질되고 있는 이곳은 여름에는 레드, 옐로우, 그린, 터콰이즈 등 각 칼라에 해당하는 꽃들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간 영국의 2월은 한국의 초겨울 날씨였기 때문에 다채로운 꽃들을 볼 수 없어 매우 아쉬웠습니다. 한편 정원에는 매우 독특한 조형물이 있었는데 유심히 보니 그것은 우리 몸의 일곱 개의 에너지 센터를 상징하고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작은 폭포의 물결이 나선형을 이루며 베이스차크라²를 상징하는 연못으로 흘러내리고 있더군요. 하루가 지나자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80년 이후 세계 500명 이상의 공인 티처가 활동

오라소마는 세계에 얼마큼 알려져 있을까요? 오라소마 칼라시스템은 1980년대 초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에 500명 이상의 공인된 오라소마 티처, 3만 명 이상의 수강생들과 프랙티서너가 활동하고 있으며, 오라소마 상담을 받은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 오라소마 프랙티서너란 오라소마 칼라시스템의 국제 공인 교육기관인 ASIACT¹³로부터 인증된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라소마 바틀을 선택한 사람들이 칼라를 통해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심신의 상태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칼라테라피스트들입니다.

오라소마의 교육과정은 크게 프랙티서너 과정과 티처 과정으로 나뉩니다. 입문과정인 레벨1에서는 비침해적이고 자기선택적인¹⁴ 오라소마의 철학을 배우고, 4개의 바틀 선택을 해석하는 상담의 기초, 그리고 오라소마 칼라 시스템의 다양한 도구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중간과정인 레벨2에서는 오라소마 칼라시스템¹⁵과 다른 전통적인 지혜와의 연관성을 배웁니다. 점성학, 수비학, 아유르베다, 요가, 보석과 광물 등 다른 지혜 체계와의 연결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이 생겨나는데, 이는 실제 상담을 할 때 풍부함을 가져다줍니다. 레벨2까지 이수한 학생이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치면, ASIACT로부터 오라소마의 공식 프랙티서너로 인증되어 국제적인 전문 칼라테라피스트로서 대중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합니다.

심화과정인 레벨3에서는 오라소마 칼라시스템과 카발라의 생명나무¹⁶ 사이의 상관성을 탐구하고, 각 칼라의 마스터 에센스를 탐구하여 칼라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높여줍니다. 또한 프랙티서너로서 상담 기술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라소마 오라Aura는 고대 라틴어로 ‘공기와 유사한, 섬세한 호흡 또는 섬세한 빛’을 의미하고, 소마Soma는 고대 희랍어로는 ‘몸’을,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영혼을 신성한 황홀경으로 이끄는 신비한 음료’를 의미한다. 이 두 단어가 결합되었을 때,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진동이 일어난다.

오라소마 바틀 원명은 ‘Equilibrium Bottle’. 오라소마 칼라시스템의 핵심 기둥이며, 두 가지 칼라가 조화를 이룬 병Bottle이다. 상층부는 에센셜오일, 하층부는 천연 허브추출물을 함유한 글래스톤베리의 켈리스 워터로 구성되며, 바틀 안에는 크리스털과 보석에너지가 특수한 방식으로 봉인되어 있다. 진심으로 바틀을 선택했을 때, 바틀의 칼라는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반영한다.

이너 칼라Inner Color 인간 개개인은 영혼의 수준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칼라를 지닌다. 이것은 투시가의 영독 Reading이나 키릴리언 사진으로 보이는 오라의 칼라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불변의 본질적인 칼라”를 가리킨다. 이너칼라는 그 영혼이 지닌 재능Talent과 잠재력 Potential, 소명mission을 반영한다.





엘모리아 블루광선의 마스터 에센스로 자신의 의지를 보다 큰 의지, 전체의 의지에 완전히 귀의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동양적으로는 이른바 “천리(天理: Blue)에 온전히 순응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세인트스. 저메인 바이올렛 광선의 마스터 에센스이다. 바이올렛은 신성Blue이 현실로 통합되는 것Red이며, 때문에 영적인 서비스와 힐링의 실천을 의미하는 칼라이다. 특히 세인트 저메인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정화를 촉진하고, 그것의 연금술적인 변형을 지원한다.

쿠트후마 옐로우 광선의 마스터 에센스로, 인간이 천사계, 데바계와 관계를 구축하며, 자신의 삶과 지혜를 고도화시키는 것을 돕는다. 이는 동양적으로는 “하늘Blue과 땅Red을 연결하고, 인간으로서 중심을 잡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힐라리온 그린 광선의 마스터 에센스로 인간이 자신만의 길,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진리를 찾는 것을 돕는다. 이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라는 유명한 금언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선택의 기로에서 있을 때, 즉 정말로 자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때 유용하다.

세라피스베아 클리어 광선의 마스터 에센스로, 모든 레벨에서의 정화와 투명함을 가져온다. “흘리지 않는 눈물 Clear”로 상징되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통해 카르마의 용서와 빛illumination을 가져온다.

마스터 에센스 원명은 퀸트에센스Quintessence. 마스터는 각 광선의 본질적인 정수를 완벽하게 구현해낸 인류의 영적 스승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통해 자신들이 체득한 지혜(마스터 에센스)를 인류에게 지도하고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레이디나다 핑크 광선의 마스터 에센스로 인간이 “조 건 없는 사랑(다만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완성해가는 것을 돕는다.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보살필 수 있는 능력과 연민compassion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레벨4는 졸업논문과 60매의 상담기록지의 제출, 36시간의 추가연구(해부학, 생리학, 상담 기술 코스)를 요구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오라소마와 칼라에 대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이해를 넓혀가며, 프랙티셔너로서의 임상경험을 쌓고 이를 검증받아 티쳐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벨4 졸업 이후 학생은 이제 프랙티셔너 과정을 졸업하고, 한층 더 티쳐 코스에 참석하여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합니다.

3~5년의 험난한 과정 거쳐 티쳐 코스 입문

제가 참석한 이번 코스는 1년에 단 한번 영국 본교에서만 열리는 티쳐1 코스였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오라소마 프랙티셔너들이 티쳐의 뜻을 품고 입학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3~5년이 소요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티쳐 코스의 입학이 허락된 만큼 참석자들의 표정은 매우 밝았습니다. 한편 이미 티쳐1 과정을 졸업하였지만 티쳐의 지식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재수강하는 오라소마 티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번 코스의 티쳐이자 오라소마 아카데미의 교장인 마이크 부쓰MiKe Booth였습니다. 마이크 부쓰는 오라소마의 창시자인 비키월 생전에 그녀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활동하였고, 비키월 사후에는 전세계 오라소마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래 전 오라소마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부터 호기심을 가졌지만, 웬지 가까이 가기 어려운, 저 멀리 있는 존재로만 여겨졌던 그였기에 저 또한 매우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접한 마이크 부쓰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친근감을 주는 중후한 영국 신사였습니다. 동시에 내면으로부터 발산되는 무한한 힘과 포용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진행된 티쳐1 코스는 그 동안 배웠던 지식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오라소마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마치 불가에서 전하는 염화미소拈華微笑란 말처럼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전수받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코스 내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우 진지한 내용이 오고 가는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유머가 넘쳤습니다.

일본에서 칼라테라피로 각광 받는 오라소마

오라소마에서는 언제나 말합니다.

“Enjoy Your Color! 당신의 색을 즐기세요!”

심각해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삶이 주는 선물, 삶이 주는 풍부함을 즐기면서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양한 오라소마 바틀들이 각각 자신만의 독특한 칼라를 가지고 있듯이 참석자들 또한 자신만의 빛깔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것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과 풍부함을 창조해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또 하나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높았으나 서열, 권위의식과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데브오라에서 방문객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부엌에서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하고 음식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녀의 이름밖에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녀가 이미 오래 전에 코스를 졸업한 이름 있는 티쳐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코스에 참석하지 않고, 단지 식모

오라소마 칼라 테라피스트 양성 강좌 [레벨1]

오라소마(AURA-SOMA) 칼라테라피스트는

칼라테라피(색채치유) 분야에서 1983년부터 20여년의 전통으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영국의 ASIACT(Art and Science International Academy of Colour Technologies) 본부로부터 공인 받은 전문 칼라테라피스트로, 보통 오라소마 프랙티셔너라 불립니다.

오라소마 레벨1(파운데이션) 코스는

영국의 ASIACT 본부로부터 인정 되는 칼라테라피스트가 되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 오라소마 칼라테라피의 기초를 배웁니다.

칼라(Color)나 대체의학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 자신의 일에 칼라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분, 직업적 칼라테라피스트나 카운슬러를 목표로 하는 분, 그리고 취미와 교양으로 칼라를 접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전문 칼라테라피스트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레벨1 코스 수료 후, 공인된 오라소마 프랙티셔너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다음 단계(레벨2)로 스텝을 밟아 가시면 됩니다.

교육내용(6일간 총 36시간) 일정: 2006년 11월 7일(화) ~ 11월 12일(일)

- 자기 선택적이고 비침해적인 오라소마의 철학
- 칼라의 본성, 색채의 파동과 이론
- 칼라의 언어, 다양한 레벨에서의 칼라의 메시지
- 인체의 에너지장과 정묘구조에 대한 학습과 실습
- 이퀄리브리엄 바틀의 기능과 특질, 사용법
- 오라소마 포먼더
- 오라소마 쿼트에센스와 마스터
- 오라소마 칼라 에센스
- 차크라세트, 레스큐세트, 차일드세트, 대천사세트
- 상담과정 1: 선택된 4개의 바틀의 위치에 따른 해석
- 상담과정 2: 칼라의 흐름과 숨겨진 칼라의 해석
- 상담과정 3: 결합된 칼라와 보색을 통한 해석
- 상담과정 4: 제품추천 가이드라인
- 106개의 이퀄리브리엄 바틀의 확장 키노트
- 바틀의 취급과 보관법
- 이퀄리브리엄 바틀을 사용한 핸드/ 발 마사지 실습
- 실제 상담 실습과 그룹 셰어링
- 칼라 명상

※ 교육 과정은 영국 오라소마 본교(ASIACT) 공인 커리큘럼으로 강의되며, **수료시 영국 ASIACT의 국제 학생으로 등록되어, 영국 본교에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강 사: 이희석 - ASIACT 공인 오라소마 레벨1 티쳐, 국가 제품 공급자
- Serapis Inner Consulting Ltd. 대표

장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39-1 SKY빌딩 세라피스 센타
(7호선 학동역 6번출구 도보 5분, 학동 공원 3분 거리)

시 간: 10:00~18:00(코스장에는 9:30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주 최: 세라피스이너컨설팅(주) (02-862-1543, 017-514-5211)

후 원: 영국 ASIACT 오라소마 본교(금번 코스에는 ASIACT 본교의 스텝인 Melanie Lewis 씨가 동석합니다)

교육비: 90만원(세금, 워크북, 등록비 포함)

입금처: 신한은행 383-02-261943 예금주: 이희석
(수강정원 20명 선착순 모집, 10월 31일 신청 마감)

홈페이지: <http://www.serapis.or.kr>

이퀄리브리엄 바틀
일부분 모습 ▶



비키엘 여사¹ 유대교의 카발라 신비주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선천적으로 오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영국 최초의 발관리사였으며, 약초를 제조하는 일에 종사했다. 그녀는 66세 때 안구의 과다출혈을 일으켜 시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 후 명상 중에 “물을 돌로 나누라”는 영감을 받은 후 오라소마 바틀을 처음으로 제조했으며, 이것이 오라소마의 시작이다.

베이스 차크라² 회음/미저골 아래 위치하며 인체의 일곱 개의 차크라 센터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한다. 인간 생명의 원천이며, 인간이 지구와 서로 연결되는 원점이다. 오라소마 시스템에서는 레드 칼라의 영역으로 생존 이슈와 연관된다.

ASIACT(The Art and Science International academy of Colour Technologies)³ 오라소마 칼라 시스템을 기반으로 칼라테라피스트의 훈련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교육기관이며, 칼라테라피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 본부는 영국 테브오라에 위치하고 있다.

비침해적이고 자기선택적인 Nonintrusive & Self-Selective⁴ 오라소마의 핵심철학이다. 누구도 그 사람 자신보다 그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는 없으며, 본인의 삶은 언제나 스스로 선택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오라소마 시스템은 결코 타인을 진단하지 않으며, 타인을 대신하여 선택해주지 않는다.

오라소마 칼라시스템⁵ 이퀄리브리엄 바틀, 포맨더, 쿼트 에센스, 칼라에센스, 아르칸젤로이 등 오라소마의 5대 기둥으로 구성되는 체계이다.

카발라의 생명나무⁶ 고대 유대교 신비주의로부터 비롯되었으며, 神으로부터 출발하여 神으로 귀환하는, 인간 의식의 진화과정을 10개의 세피로트와 22개의 길을 통해,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심오한 비전 秘傳 학문이다.



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즐기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스 중에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맺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라소마는 여성적인 직관과 포용력을 특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전세계 티쳐와 프랙티셔너의 90% 이상은 여성입니다. 그 중 가까운 일본에서 온 유명한 티쳐와 교분을 쌓게 되었는데 그녀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교육코스가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일간신문이나 여성월간지, NHK 등 미디어로부터 주목을 받아 칼라테라피는 곧 오라소마라 인식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특히 20~40대의 여성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고 하더군요. 현재 일본에는 200명의 티쳐와 1,000여 명의 등록된 프랙티셔너가 있다고 하니, 같은 동양권으로서 매우 부러운 일이었고 큰 자극이 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코스 마지막 날에는 테브오라의 오라소마 제품공장을 견학하고 어떻게 천연의 식물과 허브, 크리스털로부터 칼라의 에센스가 추출되어 오라소마의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시아엔젤스 Lucia Angels 라는 오라소마 공식 매장을 방문하여 소필할 기회를 가졌는데,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매우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매장이 한국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서도 충분한 대중적인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라의 풍부함과 즐거움이 주는 엄청난 선물

오라소마 칼라시스템은 다른 영적인 체계나 의식성장 프로그램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라소마 바틀과 같이 눈에 보이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의식의 성장이란 측면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물질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라소마는 현대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 활용합니다.

오라소마 제품 주식회사 Aura-Soma Products Limited는 그것을 모방하는 수많은 아류가 생겨날 만큼 비즈니스적으로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오라소마 티쳐와 프랙티셔너들은 교육과 상담활동 등을 통해 그러한 정신적 서비스에 합당한 경제적인 풍요와 대중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정신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족함이나 일반인들로부터의 단절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오라소마가 가르치듯이 빛이 지니는 본래의 풍부함과 즐거움을 향유하고, 그것을 얼마든지 물질적인 풍부함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일만에 걸친 오라소마 티쳐1 코스를 마치고 정들었던 테브오라를 떠나면서 진한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한국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떠오르더군요. 앞으로 한국에서도 “칼라가 주는 풍부

함과 즐거움”이라는 오라소마의 메시지가 더욱 보급되어 삶의 각박함에 지친 한국인들에게 평화와 여유를 선물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글을 쓴 이희석은 오라소마 티쳐이며 (주)세라피스 이너컨설팅 대표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동양증권(株), 한국신용정보(株)에서 5년간 근무하였다. 1998년에 오라소마를 처음 접한 이후 이듬해 레벨1과 레벨2를 한국과 인도에서 수료하였다. 2000년 오라소마 프랙티셔너 자격을 획득한 이래 다년간 오라소마 상담가로서 활동해 왔다. 2006년 2월 영국 테브오라를 방문하여 'Aura-Soma International Academy of Colour Therapeutics' 공인 오라소마 칼라시스템 티쳐1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오라소마 티쳐 자격을 획득하였다. 2006년 5월에는 영국 'Aura-Soma Products Ltd.'로부터 오라소마의 한국 내 제품공급자 Distributer로 공식 임명되었다. 현재 서울 논현동에서 오라소마센터 '세라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http://www.serapis.or.kr>